

서울특별시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종필 의원

안녕하십니까?

용산 제2선거구 출신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종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조례」의 제정안에 대해 직접 참석하여 설명 드려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렇게 서면으로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태극기는 1883년 고종20년 처음 조선의 국기로 제정되어 1949년 대한민국의 국기로 공포 되었고, 1919년3월1일 독립운동 만세 시위에 사용되어 항일 운동의 상징으로 온 국민의 마음속에 각인 되었기 때문에, 어느 나라의 국기보다도 그 소중함을 잠시도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축구 대회에서는 온 국민이 하나 되어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민국을 외쳤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경일에도 국기를 게양하는 집을 찾아보기 어려운 정도로 국기 선양에 대한 관심은 멀어졌고, 관공서 마저 관리가 되지 않아 오염되거나 손상된 상태로 국기를 관리하는 곳이 있기도 합니다.

특히 가로기의 경우에는 오염이나 손상된 정도가 심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2개의 자치단체는 이미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어서, 비교적 서울시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급히 조례를 제정하여 국기선양과 올바른 관리를 시행 함으로써 서울 시민의 애국심을 고취 시켜야 합니다.

국기에 대한 선양은 서울시청이나 일부 기관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시민이 함께 할 때, 서울시의 밝은 미래가 있고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